

“예금담보 대출 왜 막냐… 소득증빙 까다롭네” 일부 항의

DSR시행 첫날 은행 표정

관련 문의 왕왕 있고 분위기 차분
사회초년생·은퇴자·자영업자 등
소득증빙 어려워 민원 많아질 듯
청약 등 예금 중도해지 초래 우려

가장 깐깐해 대출규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시행됐다.

몇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쳤던 만큼 대체로 큰 혼란은 없었지만 DSR이 주택담보 대출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있어 적용되다 보니 도입 첫 날에도 일부 지점에서는 민원과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대출을 해줄 때 DS R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DSR은 기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지표로 DSR 70% 이상은 위험



31일 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서울 중구 한 시중은행 앞에는 대출 관련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스1

대출, 90% 이상은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중간혹 DSR 관련 문의는 있었지만 전반적

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고객 응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이나 민원은 예상했던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다른 가계대출에서 많이 나왔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13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보다는 DSR의 부채범위에 들어가게 된 다른 가계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예금 담보대출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 DSR이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은퇴자들의 경우 예금을 분산시켜서 임대소득 등이 들어오는 주기와 맞지 않을 경우 예당대를 짧은 주기로 일으키고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을 받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등의 항의를 하는 손님도 있었다”고 전했다.

300만원 초과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DSR을 산출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들의 경우 일단 소득증빙 자체가 어렵고, 신속히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 예금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청약자축이라면 순위 박탈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토론 등 보증서담보대출도 고객 입장에서 보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C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토론 등은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쳤음에도 다시 DSR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득증빙이라는 절차도 추가돼 대출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시중은행은 시행 첫 날보다 앞으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DSR 시행으로 근로자보다는 소득 증빙이 복잡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행일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쁜 월말이라 앞으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금융지주, 아시아신탁 지분 인수

100% 전량 인수 결의

신한금융지주는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시아신탁 경영권 지분 인수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한금융은 아시아신탁 대주주 및 기타 주요 주주 보유지분 100%를 전량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지분인수는 이번 60%를 1934억원에 인수한 후 향후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는 구조다. 잔여지분에 대한 취득금액 및 취득시기는 2022년 이후에 결정된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은 그룹의 중장기 비전인 ‘2020 SMART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영역”이라며 “부동산서비스 사업라인을 보강해 향후 그룹사와 연계한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직후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과 아시아신탁(주) 정서진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2006년 출범한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 900억원 규모의 업계 5위



신한금융지주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아시아신탁(주)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왼쪽)과 아시아신탁 정서진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도가 적은 비차입형신탁 등 대리사무 부문에 강점이 있다.

신한금융은 금번 인수를 통해 부동산 관련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룹의 보유자산, 자금력, 영업채널, 고객기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등을 활용해 개발·임대·상품화에 이르는 부동산 일상 전영역을 아우르는 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조용병 회장은 “그룹 GIB·GMS·WM 사업 부문과의 협업 극대화를 통해 ‘역시 신한이 하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희 기자

SC제일은행

‘미키마우스’가 카드로 쏙

SC제일은행은 인기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90주년을 기념해 ‘미키’를 모델로 디자인한 한정판 체크카드와 통장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의 ‘에이스플러스체크카드’에 적용되는 디즈니 체크카드는 90주년을 맞아 처음 한국을 찾는 미키의 캐릭터와 서울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았다. 1만 장이 한정판으로 제작된다. 미키 캐릭터 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으로 2종의 디자인으로 총 20만장이 한정판으로 제작된다.

SC제일은행은 ‘미키 마우스와 함께하는 영화 이벤트’에 고객 200여명을 초청하는 행사도 마련한다. 이벤트는 11월 29일 오후 6시 용산 CGV에서 열린다. 미키와의 만남, 디즈니 클래식 영화 단체관람, 현장 추첨을 진행해 미키와의 1대1 사진촬영 등을 진행한다. 영화 관람 외에도 미키 90주년 한정판 카드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우리은행, SK그룹과 포용적 금융 ‘맞손’

대안신용평가 모델 공동 개발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본점에서 SK그룹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최광철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 이인찬 SK플래닛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과 SK그룹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각 사의 핵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 포용적 금융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가 부족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개인을 위한 것으로 포인트 적립 정보, 온라인 구매 정보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 등급과 점수 등을 산정한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금융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가운데)과 최광철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왼쪽), 이인찬 SK플래닛 대표이사가 지난 30일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SK그룹과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창업육성플랫폼 ‘IBK 창공 마포 1기’ 데모데이

IBK기업은행

기업 27억 투자유치 성과

IBK기업은행은 지난 30일 창업육성플랫폼 ‘IBK 창공(創工)’의 ‘마포 1기’ 기업들이 서울을 지나 IBK파이낸스타워에서 ‘2018 IBK 창공 데모데이(Demo Day)’를 가졌다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지난해 12월 IBK 창공 마포가 개소한 이후 10개월 동안 진행된 엑셀러레이팅의 최종 마무리 행사이다.

기업은행은 IBK 창공 마포 선발기업에 약 18억원의 대출, 총 164건의 컨설팅·멘토링·기술자문, 벤처캐피탈리스트(VC) 연계, 중국 진출과 현지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데모데이 등을 지원했다.

선발기업들은 총 9개 기업이 약 27억원



지난 30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2018 IBK 창공 데모데이(Demo Day)’를 마치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가운데)과 ‘IBK 창공 마포 1기’ 선발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직접투자 유치, 중국 현지기업과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행사는 창공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과 홍보, 모의투자 시상식, 마포 1기 성과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30여명의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VC), 300여명의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IBK 창공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일 IBK 창공의 두 번째 센터인 구로센터의 문을 열었고, 지방 거점도시에 세 번째 센터를 열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마포 2기 기업도 선별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원~~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 4일(화)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